

韓國의 都市 建築의 將來展望

尹 定 燮

(서울대 공대 도시공학과교수)



◇ 序 論

우리나라의 都市와 建築의 將來展望을 論함에 있어 먼저 분명히 해 둘 두가지 前提條件을 定立코져 한다.

첫째는 그 時代의 概念인데, 장래전망이라고는 하나 對象時代를 현대(우리나라의 경우는 開港—高宗16년 己卯, 1979년부터 2,000년대로 본다)중 특히 現代後期인 1945년 해방후 2,000년대까지를 제1기와 제2기로 분류하여 제1기를 1945~1962년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樹立까지로, 第2期를 1962~2,000년까지의 급격한 産業化와 經濟成長, 따라서 여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都市化 및 都市建築의 發展을 이룩한 2時期로 구분한다면, 장래전망은 특히 現代後期中 제2기인 1962년이후 現時點인 1983년前后的 우리나라 都市 및 建築의 發展相과 아울러 現時點 이후 21世紀初까지의 전망에 그 論議의 集點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現代後期中 제2기에 論議의 焦點을 맞추기 위해서는 現代前期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開港이후 解放까지 즉, 1879~1945년까지의 現代前期와 1945~1962년 까지의 現代後期中 제1기에 해당하는 두 시기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의 地域性이 都市 및 建築에 미친 영향과 實相에 대해서 遡及하여 약간의 考察을 하여야만 前后的 脈絡(Context)을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거 및 현재의 우리나라 都市 및 建築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 本特輯의 現況에서도 論議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本稿에서도 약간의 經緯說明이 있을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를 論하는데 있어서는 外國의 都市 및 建築과의 比較研究가 있어야 韓國의 경우, 그 將來展望을 豫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므로 外國 특히 西歐地域의 産業革命 즉, 「제임스·วัต트」(Watt)가 蒸氣機關을 발명함으로써 인하여 이룩된 제2의 물결이후 앞으로 2,000년대까지의 都市 및 建築의 發展狀況

을 소개하고 이것들을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都市 및 建築의 나날 바를 전망해 볼까 하는 意圖인 것이다. 다만 西歐의 경우 産業革命 이후를 現代로 분류한다면 왓트에 의한 蒸氣機關 발명 즉, 1765년 이후부터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이 중에서 1962년 소위 Team X 그룹에 의한 新都市 및 建築運動 이후 21世紀初까지의 시기에 관한 論議에 역시 焦點을 맞추기로 하고, 1962년 이전에 관한 것도 言及을 試圖하기로 한다.

◇ 外國(西歐地域)의 都市·建築의 발자취

西歐地域의 都市 및 建築에 대한 발자취를 대체로 3個 시대로 구분하여 각각의 時代的 背景 즉 社會, 經濟的 側面과 이들이 각 시대의 都市, 建築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 결과로 비쳐지는 都市, 建築의 變遷相을 알아 보기로 하겠다. 즉 産業革命 이후 1898년 「E. Howard」에 의하여 제창된 田園都市運動(Garden City)에 이르는 약 64년간을 제1기로, 이어서 1898년 부터 1927년에 결성된 國際現代建築家會議(CIAM, Congress Internationale Architect Moderne)까지의 약 29년간과 계속하여 1962년 前述한 Team X 그룹에 의한 新時代에 부응한 都市 및 建築에 관한 새로운 해결방안의 제시에 이르는 도합 64년간을 제2기로, 1962년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약 40년간을 제3기로 구분하여 都市 및 建築의 變遷相을 알아 보기로 하겠다.

제1기에 관하여 都市, 建築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기간의 주요내용은 크게 나누어 都市問題의 발생과 理想都市案의 제창이며 나가서 田園都市運動의 主唱이었고, 또 建築에서는 工業化에 따르는 鐵材의 사용과 이에 의한 鐵骨造의 탄생 및 런던과 파리 等地에서 개최된 世界博覽會 때의 鐵骨造建物과 파리에 세워진 에펠(Eiffel)塔 등의 출현이라 하겠다.

먼저 都市問題와 理想都市案에 관하여 알아

보면, 「왓트」의 蒸氣機關의 발명 이후 企業家들이 이 動力을 그들의 工場工程에 사용하게 되었고 따라서 製品生産량은 증가하였다. 한편 농촌에 둘러 싸여 공장이 세워지고 工業人口가 증가됨에 따라 農村人口의 都市流入은 심화되고 미숙련 미성년 노동자가 工業都市에 집중하였다.

공장으로부터의 煤煙과 騒音, 衛生施設이 거의 안된 住宅에서의 過密住居現象은 産業革命이 가장 일찍 일어난 英國에서 가장 먼저 심각하게 나타났다. 여기에 비극을 더한 것은 도시의 擴散現象(Sprawl)이었다. 都市地域의 巨大化, 無秩序한 建物, 아메바적인 발전, 寄生的 都市郊外の 발생, 농촌의 황폐, 都市美 田園美의 汚損, 그리고 가난을 배경으로 하는 슬럼街 등이 공통된 현상이었다. 이러한 都市問題들이 대두됨에 따라 現代初期의 理想都市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이중 몇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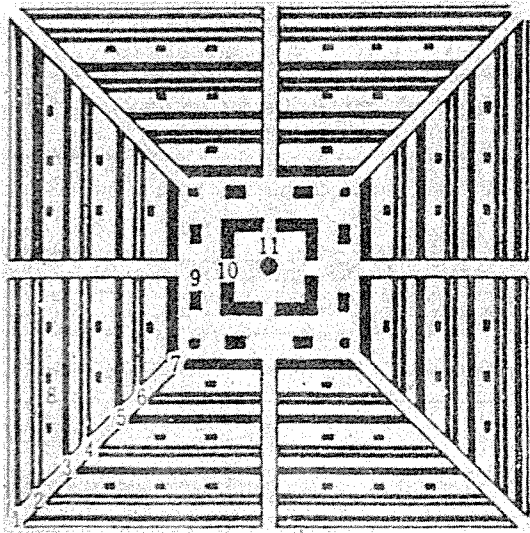
19세기 序頭에 英國의 社會改革家인 「Robert Owen」은 맨체스터 부근의 뉴라나크(New Larnark)의 工場地帶에 농업과 공업을 결합한 理想工場村의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 계획은 失業者가 없는 自給自足(Self-Contained)의 공동 생활을 영위하려는 것으로서 외곽도로가 마을 주위를 돌며, 공장과 作業場은 居住區의 周邊境界地帶에 배치하게 되어 있다.

1849년 J. S. Buckingham은 “國家惡과 實際的 治療(National Evils and Practical Remedies)”라는 책을 발표하고 빅토리아(Victoria)라는 유리로 덮힌 도시를 제안하면서 模範都市協會를 구성하고, 여기서 아름다움, 건강, 편의성을 우선하여 近代建築技術이나 과학적 진보를 적극적으로 도시에 도입하여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理想都市의 제안은 너무 空想的이거나 경영에 촛점이 있어서 실제로는 거의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勞動者의 생활에 대한 관심, 協同組合方式에 의한 운영, 도시와 농촌을 결합하는 계획 등은 당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工場經營者중에는 자기의 工場

에서 일하는 勞働者들에게 좋은 住宅과 環境을 주는 것이 의무라는 생각에서 모델 커뮤니티(model Community)를 실제로 건설하는 사람도 생겼다.

■ Buckingham의 理想都市



1. 세로 20ft의 주택 1000호.
2. 공장을 위한 아케이트.
3. 세로 28ft의 주택 560호.
4. 소매상점.
5. 세로 38ft의 주택 296호.
6. 동계 보행용 아케이트.
7. 세로 54ft의 주택 120호.
8. 학교, 공동탕, 식당.
9. 공공건물, 교회.
10. 세로 80ft의 저택 24호.
11. 중앙 광장

이외에도 1853년에 모델工場都市 Saltaise가 Titus Salt에 의하여 完成되었고, 1887년 英國의 비누製造業者인 Lever兄弟는 리버풀근처에 부지 220ha의 노동자를 위한 Port Sunlight를 건설하였다.

19세기는 과거에 대한 탐구의 시기이기도 했다. 1889년 奧地利의 建築家인 Camillo Sitte는 “예술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한 建築家の 기록과 反影(An Architects Notes and Reflection upon Artistic City Planning)”이라는 著書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古代, 中世의 都市空間構成을 해석하고, 여기에 공통적으로 內在하는 都市要素間の 基本原理를 찾아 내고 객관성아래 배치, 비례, 규모, 목적 등에 관한 원칙을 탐구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空間構成의 모

델을 창작하였다. 그는 도시의 空間은 연속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건물은 광장이나 기타 要素와 상관관계되는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파리改造計劃의 主人公 「Hausmann」에 대한 반발로서 도시가 확장될 때 옛都市들의 주의깊은 보존을 주장한 그의 설계는 都心部の 설계에 있어서 고전적인 형식을 갖춘 中世的手法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建築家 「Tony Garnier」는 1917년 工業都市(Cite Industrielle)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案의 특색은 地域地區制(Zoning)에 의한 工業地域과 기타 지역과의 完全分離로서 공해로부터의 都市環境의 保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1898년 英國의 「E. Howard」는 “미래의 田園都市(Garden Cities of Tomorrow)”를 출판하여 巨大都市 또는 過大都市의 救助方法으로서 도시와 田園을 일체로 하여 해결하는 田園都市의 手法이 案出되고 이로 인하여 도시를 廣域的으로 전개하여 처리하였다. 그는 도시(town), 田園(country), 田園都市(towncountry)를 3개의 磁石(magnet)으로 비유하였다.

이 계획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1889년에는 田園都市協會가 설립되고 1903년에 田園都市 레치워스(Letchworth)가 실현되었다.

이와 같은 英國에서의 田園都市의 성공은 당시의 世界各國에 큰 영향을 주어 田園都市뿐 아니라 田園郊外(garden Suburb)라고 할 수 있는 것이各地에 건설되었다. 田園郊外는 대도시의 교외에 위치하며 충분한 空地나 공공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居住者の 대부분은 버스 또는 高速鐵道에 의하여 대도시로 통하는 일종의 郊外住宅地이며 완전한 自給自足都市는 아니다.

이상으로 현대 제1기의 西歐地域에서 변천된 都市樣相을 概說하고, 다음은 같은 時間의 建築樣相의 변천을 알아 본다.

이 시기의 建築樣相은 한마디로 새로운 잠재력의 발전이라고 표현된다. 즉, 産業革命에 의한 工業化가 획기적 계기가 됨으로서 18세기는 이른바 발명의 洪水期라고도 불리운다.

무엇보다도 먼저 鐵生産의 공업화를 들 수 있겠다. 鐵이란 결코 새로운 資材가 아니며, 멀리 鐵器時代로 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그러나 여기서는 鐵生産의 공업화와 더불어 鐵에 建築資材로서 전혀 새로운 중요성을 지니게 된 點이다. 이 資材는 처음에는 機械製作에 주로 활용되었으나, 1767년 최초의 鐵製軌道가 鑄造되고, 18세기 3·4분기 초에 최초의 鑄鐵製 橋梁이 英國 세베른 (Severn) 江위에 건립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런 기술상의 진전의 가능성이 建築家에게도 역시 영향을 미친 것 같았다. 英國 런던의 리젠트 (Regent) 公園 및 리젠트街의 建築家였던 「John Nash」는 1808년에 皇太子 George의 王宮을 설계하였는데, 印度風의 幻想的 설계로 中央部에 큰 양파꼴 돐을 가지고있고 이 돐은 60톤이나 되는 鑄鐵骨造위에 얹혀져 있다.

■ Brighton의 王宮



다음에 1851년에 런던에서 개막된 大博覽會에서 건립된 水晶宮 (Crystal Palace)은 마치 童話의 나라의 건물과 같은 환상을 불러 일으켰다. 工業化가 물고 온 모든 불량상태와 무질서한 都市現象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환상의 세계에 속하는 감상을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부드러운 건물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水晶宮은 英國의 고도로 발전된 공업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었고, 製造過程에서 가장 단순하고 합리적인 방법의 적용이었던 것이다. 즉, 連續工程의 산물이었다. 全體建物の 설계는 大版 유리로 계획되었으나, 그것은 다만 4피트길 이 밖에 아니 되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大版 유리의 제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水晶宮은 前例가 없는 건물의 新概念을 보여 준 것으로 그것은 유리, 鐵材 및 木材로 구성된 대규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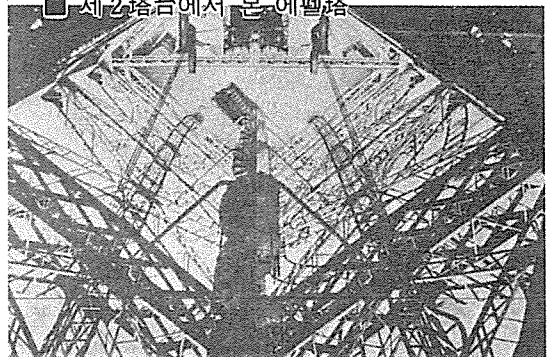
첫 건물이었으며, 鑄鐵과 鍛鐵의 보들이 볼트로 결합된 骨體 즉, 工場生産 鐵材의 現場組立 (Prefabricated) 構造의 최초의 건물이었다.

■ 水晶宮, 런던. 1851



다음의 또 하나의 획기적 구조물은 파리에 1889년에 세워진 1,000피트높이의 에펠 (Eiffel) 塔이다. 地耐力과 風壓에 대항하여 구조물의 基礎와 支柱에 관한 경험을 살려서 「Eiffel」이 실현시킨 결과이었다. 파리 都心地에 돌출되는 構造體만의 塔을 세워 파리를 俯瞰하는 효과에 펠도 두려워 하였었다. 構造面에서 고찰하면 이 塔은 鐵骨橋梁의 높은 橋脚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며 이것을 宇宙의 스케일로 발전시켰다 할 것이다. 세개의 橋脚이 치솟아서 最頂點에서 합치도록 설계되었다.

■ 제2塔台에서 본 에펠塔



이상에서 우리는 産業革命이후 1898년의 田園都市運動의 發祥에 이르는 西歐地域에서의 도시와 건축의 變遷史를 개관하였거니와, 계속하여 現代 제2기 (1892~1962) 및 제3기 (1962~2000)년의 西歐地域에서의 도시와 건축의 발전 경위는 다음 우리 나라의 해당시기의 도시와

건축을 논할 때 아울러 서술하고, 韓國과 비교 연구토록 하겠다.

◇ 韓國의 도시의 발자취와 將來展望

우리 나라의 도시의 발자취는 前述한 바와 같이 開港(1879) 이후 解放(1945)을 거쳐 1962년에 이르는 기간인 약 83년간을 現代의 제 1기로, 이어서 1962년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 수립에서부터 앞으로 2,000년대에 이르는 약 38년간을 現代의 제 2기로 보고 이들 기간의 都市變遷을 略述 및 將來展望하되, 前述한 西歐地域의 시대구분과 비교해보면, 田園都市運動(1898)에서 Team X 그룹(1962)까지 現代 제 2기가 우리나라의 제 1기에, 또 Team X(1962)에서 앞으로 2,000년대까지가 우리나라의 제 2기에 각각 해당된다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開港(1879) 이후로 볼 때, 西歐地域의 근대화는 산업혁명(1765) 이후이므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西歐보다 약 110여년 뒤떨어졌다고 추측된다. 다음에 開港初의 도시화를 약술한다.

高宗13年 丙子(1876) 2월에 江華修好 條規十二款이 체결된 후 己卯(1879)년에 釜山, 庚辰(1880)년에 元山 및 癸未(1883)년에 仁川港 등 3港이 개방되어 舊來의陋習을 타파하고 甲申(1884)年前后로부터 개화의 기운이 점점 각방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現代 第1期初의 開港港口都市였던 木浦, 鎭南浦(甌南浦)는 丁酉年(1897) 韓日暫定合同條款에 의하여, 또 群山, 城津은 戊戌年(1898)大韓帝國議政府會議決定에 의하여 각각 開港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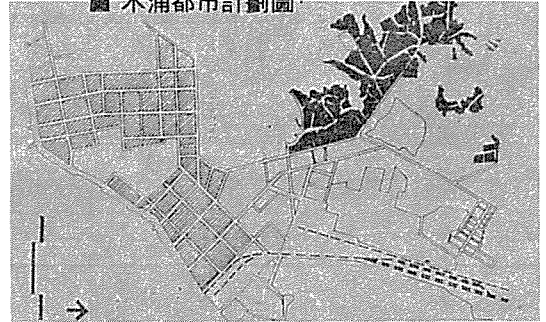
이때 木浦의 各國居留地 總面積은 720,024㎡(약 22만坪) 즉, 72.6ha이었으며, 鎭南浦의 그것은 480,006㎡(약 14만5천坪) 즉, 48ha에 불과하였다. 木浦居留地에서 留保 購入한 各國領事館敷地는 日本, 露國, 英國 등이었다.

다음 群山과 城津에 대하여 살펴 보면, 光武3年(1899) 즉, 開港 다음 해에 群山港에 설치될 各國共同居留地計劃이 승인되었는데, 이 때

정해진 各國居留地의 總面積은 570,000㎡(약 17만3천3백坪) 즉, 57.2ha이었고 이 중 山地를 뺀 住居用地는 336,669㎡(약 10만2천坪) 이었다.

開港場 城津에는 西歐人の 居留가 일찍부터 이루어진 탓으로 基督教이 발전하였는데 1901년 캐나다宣教師 그리아슨博士가 이곳에 정착하여 教會뿐 아니라 미혼계통의 病院, 學校 등도 창설되어 宗教都市로도 유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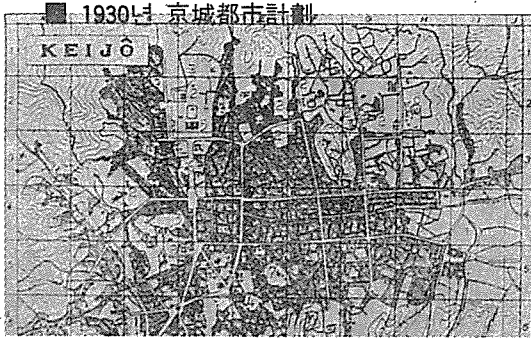
● 木浦都市計劃圖



다음에 日帝時代의 都市發展을 살펴보면, 日帝時代 서울에 대한 都市計劃樹立이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1930년의 都市計劃案이었고, 두 번째가 1936년의 都市計劃案이었다. 京城府가 발표한 1930年案은 1930년을 起點으로 目標年度를 1959년으로 잡은 30년계획(長期計劃)으로, 이것은 다음의 1936년 都市計劃案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여기서 添言할 것은 日帝는 1934년 朝鮮市街地計劃令을 우리나라에 公布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日本本土에서 公布 실시되었던 都市計劃法과 建築物法을 혼합 編制하여 우리나라에는 施行令으로 적용한 것으로 최초의 適用對象都市는 咸北 羅津府로 1934년에, 京城은 2年후인 1936년에 적용하였다.

京城都市計劃의 1930年案의 計劃區域面積은 당시의 京城府 35,077,350㎡(35.08km²)에 隣接面 즉, 漢芝面, 碓島面, 崇仁面, 恩平面, 延禧面, 龍江面, 北面, 永登浦面 및 陽東面 등 9個面の全體 里 또는 일부 里區域을 포함하여 總 108,768,700㎡(108.77km²)로서 京城府 行政區域面積의 약 3배에 달했고, 그중 住居可能面積은 77,752,600㎡(77.75km²)로서 京城府內 可用地面

積 25,995,750m² (25.99km²)에 비하여 약 3 배에 달하였다.



다음은 30年案의 用途地域計劃表이다.

<表> 京城府 用途地域區分(1930年案)

區分	面積(m ²)	比率(%)	備考
住居可能地	77,752,600	71.5	汝矣島는 過半은 將來豫備地
住居地域	42,470,700	39.0	
商業地域	13,340,200	12.3	
工業地域	14,001,500	12.9	
未指定地域	7,940,200	7.3	
住居不可能地	31,016,100	28.5	
計	108,768,700	100.0	

이어서 1936년의 都市計劃案은 1934년 6월 20일자로 朝鮮市街地計劃令이 制定公布되고 同年 7월 7일자로 이의 施行規則이 발표되므로 京城府는 公定都市計劃(Official City Plan)으로서 '30年計劃案을 토대로 새로운 都市計劃을 成案하였다.

다음 해방후 首都서울의 都市計劃施行이 遲遲不振하다가 6·25라는 비극으로 많은 피해를 입긴하였으나 기왕 서울이 파괴된 此際에 서울 修復과 더불어 대담한 都市改造가 이루어질 수 있는 千載一過의 機會를 맞이하게 되었다.

서울 修復과 더불어 추진된 서울 都市基本計劃案은 避難首都 釜山에서 그 基本構想이 짜여졌던 것으로 이 基本計劃의 概要는 앞으로 예측되는 서울의 급격한 社會人口增加로 부득이 計劃人口의 全面調整과 이에 따르는 都市計劃區域의 확장, 用途地域計劃의 재검토, 交通計劃

즉, 街路網(Road Network)의 재편성 및 기타 公園綠地計劃, 公共施設計劃에 이르기까지 실로 既存計劃의 재정비의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都市基本計劃을 白紙로 부터 다시 수립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 서울 都市基本計劃(1952)

表 6-7 서울 用途地域區分(1952.3.25)

地 域	面 積(m ²)	比 率(%)	備 考
住 居 地 域	87,647,914	64.6	舊에 地域細分法에 對 於 別除됨. 都市計劃區域內 既存市街地.
商 業 地 域	6,362,680	4.6	
工 業 地 域	6,879,600	5.1	
混 合 地 域	28,870,200	21.3	
綠 地 地 域	5,904,000	4.4	
合 計	135,664,394	100.0	

註: 都市計劃區域·既存市街地面積이 第1次計劃區域과 相異함, 서울特別市, p.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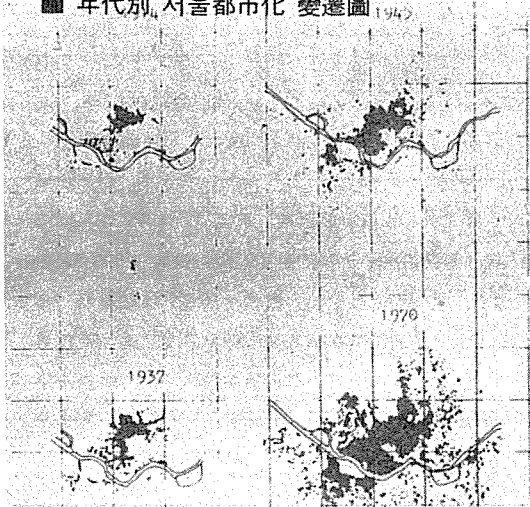
그후 4·19이후 현재까지의 首都 서울의 도시계획의 경위는 그 都市計劃區域의 3차, 4차 및 5차 확장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서울의 人口增加가 그만큼 급격했기 때문이다. 第3次擴張은 5·16혁명이 일어난지 1년만인 1962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特別市行政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서울 特別市의 法的地位가 향상되고 이와 함께 종전의 都市計劃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다루어짐과 함께 이 당시 首都 서울의 人口가 290萬人을 넘어 계속 增加趨勢를 보이는데 대비하여 都市計劃區域을 267,770,642m²에서 595,553,000m²로 또다시 대폭확장한 것이다. 서울의 都市化區域 變遷圖는 다음과 같다.

다음, 이같은 都市人口의 급증과 都市計劃區域擴張에 대비하여 서울市當局은 巨大都市 서울에 대한 本格的 都市基本計劃樹立의 필요성을 切感하여 1971년을 基準年度로 하고 1991년을 目標年度로 하는 20年計劃樹立을 大韓國土計劃學會에 委託研究케 하였다.

이상에서 서울의 都市計劃變遷을 概觀해 보건데 해방후 都市人口 불과 100萬人 정도의 單一都市가 2,000年代에는 人口 千萬人의 廣域都市로 계획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고 이같이 늘

라운 都市發展이 1945년을 起點으로 볼때 半世紀후인 2,000年代에 성취된다는데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年代別, 서울都市化 變遷圖



한편, 이 기간에 西歐地域의 都市變遷은 田園都市(1898) 이후 1933년 CIAM이 제정한 아테네憲法은 1950년대에 와서 새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젊은 建築家, 都市計劃家들 사이에서 대두되었다. 이들이 Team X 그룹을 형성하였다(1962). 또 1963년 그리이스의 都市計劃家인 「Doxiadis」는 그의 理論 “EKISTICS (人間定住社會科學)”를 전개, 발전시켜 델로스(Delos) 宣言을 채택하였다. 그에 의하면 人間定住社會의 요소는 Men, Society, Nature, Network, Shell 의 5가지로 구성되며 이들이 조화있는 相互關係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고 또 그 空間單位로서 15單位를 들고 있다. 즉, 單一都市에서 廣域都市 및 巨大都市로, 다시 巨帶都市(Megalopolis)로, 未來都市(Dynapolis)로 都市가 발전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은 이미 巨大都市에서 巨帶都市形成段階에 들어서 있다 할 것이다.

1900年代의 舊韓國末期의 건축은 1905년을 고비로 하여 慶雲宮(德壽宮)내에 세웠던 洋屋建築이 주된 건물들이라고 보아지며, 또 日本統監府의 뒷받침으로 추진된 官衛建物이 주된 건축들이었다.

1897년 俄館에서 德壽宮으로 還御한 高宗皇帝는 德壽宮의 重建과 修理를 命하여 7년간의 계속 공사로 여러 殿閣과 門들을 완성케 하였다. 그 공사중에는 4,5個의 洋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靜觀軒(現存), 惇德殿(現無), 九成軒(現無), 重明殿(現存), 環碧亭(現無) 등이다. 이것들과 착공시기는 비슷하나(1900) 10년 후에 완성된 石造殿이 있다. 石造殿은 開港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洋屋建築이라 할 것이다.

日帝時代의 대표적 건축은 朴吉龍에 의하여 설계된 和信百貨店이 있으며, 이 건물은 高層빌딩으로서 최초의 韓國人의 설계로서 鍾路十字路의 街角地形을 이용할 수 있는 利點과 더불어 洗鍊되어 보이는 近代建築이다. 技巧적이고 개방된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해방후의 건축으로는 '60년대에 들어와 典型的 國際建築樣式이 그대로 根幹을 이룬 점이다. 특히 事務所建築의 대부분은 그러하였는데, 그것은 건물의 目的上, 또는 工法上 가장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스타일에 부합된 재료의 발전이 있었음을 기억할만한데, 그것은 聖母病院(筆者 設計參與)과 朝興銀行本店에서 國產 커튼·월을 개발 사용한 사실이다. 같은 '60년대에 프랑스의 巨匠 「Le Corbusier」의 門下에서 修學하고 귀국한 金重業에 의하여 설계된 프랑스 駐韓大使館이 있다. 金重業이 「Le Corbusier」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개성으로 成功作으로 稱頌된 건물이었다. 그것은 韓國의 傳統形態와 機能的인 西歐構造와의 무리 없는 결합은 물론, 2個棟의 조화이론 화합의 효과에서였다.

1900년대를 前後하여 新建築이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어언 100년이 되는 지금, 韓國建築이 다양화되었는데도, 상대적으로 보아 세계적인 수준에서 늘 뒤지고 있는 것을 否認할 수 없다. 그 가장 큰 원인은 材料와 工法의 후진성일 것이다.

◇ 韓國 建築의 발자취와 將來展望

또 韓國建築의 기술면뿐 아니라 형태면에서도 한계성이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한편, 西歐地域에서는 1980년대에 이미 近代建築思潮가 발생하였으며, 공업화에 따르는 建築樣式의 기능주의와 형태면에서도 新藝術(L'art Nouveau) 建築樣式의 위장된 양식을 배격하고 솔직하고 대담한 표현과 機械 및 工業製品의 활용으로 인한 單純性, 輕量性, 内外部空間의 貫通性의 편견과 자연과 조화되는 건축의 재발견 등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는 동시에, 그 후 1962년의 Team X 그룹에 의해 주장된 사회의 변화나 流動狀況에 적응하고, 기능 그 자체의 변화를 고려하고, 사는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개방된 美學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현대건축의 다양성, 塑性 등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현재 韓國의 현대건축과 건축의 전망이 혼미 상태에 있다면 앞으로의 韓國建築의 비전은 무엇이라 할 것인가?

筆者는 2가지 將來展望을 말하고자 한다. 하나는 韓國이 갖고 있는 전통과 地方色(Local Color)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며, 또 이것이 現代建築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하는 根本問題이며, 둘째는 최근의 기술혁신이 가져 온 성과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韓國建築에 도입하고, 아울러 급격한 도시화과정과 인구증가문제, 都市와 農村間의 地域格差(Regional Disparity)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제반 社會經濟施策을 建築家는 어떻게 그들이 창조하는 内外部空間에 반영시켜 나가느냐 하는 전망이 설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 民族은 古來로부터 자연에 순응하는 모듬살이(聚落)와 집을 지어 왔다. 이같은 자연에의 인간의 適應思想을 어떻게 살려서 우리나라의 將來 都市 및 建築形成을 이어 나가느냐 하는 大命題가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는 것이다.

대신 말하여 주는 기계

다리와 언어장애자도 이제는 일상적으로 보는 물체, 사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새 통신보조기의 전자음성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잉글랜드 동부 에섹스 대학교 전자공학센터에서 개발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조종되는 이 기기는 단어를 설명하는 기호를 사용하는 통신 '블리스(Bliss)'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이 방법은 각국에서 장애자용 교육보조기로 널리 채택되고 있다.

장애자가 휠체어에 부착된 4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종각을 사용, 도표 위에 따로따로 불이 들어오는 192개의 기호중 하나를 골라 조종간을 누르면 기계에서 음성이 나온다. 아동 개개인의 능력차에 따라 통신기에 끼워지는 도표를 바

꿀 수도 있고 신체의 특수 부위 장애자를 위해 조정장치들을 개조할 수도 있다.

개발팀은 현재 어린이 목소리를 넣으므로써 듣는 이들을 더욱 기쁘게 할 계획이며 선택된 낱말을 이어 문장도 만들수 있고 또 몇몇 유닛(Unit)을 개발하여 소량생산에 들어 갈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성실한자 불만없고 안일한자 만족없다.